

간호윤리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관련성 연구

김혜옥^{1,*} · 문미영^{2,†}

¹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0년 11월 30일 접수: 2020년 12월 29일 수정: 2020년 12월 30일 채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Ethics Education o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Hae-Ok Kim^{1,*} · Mi-Young Moon^{2,†}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Received November 30, 2020; Revised December 29, 2020; Accepted December 30, 2020)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과목 적용 후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 성과인 간호실무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평점은 3.08 ± 0.33 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 평점은 3.22 ± 0.84 점,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2.86 ± 0.22 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가치관($r=.48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높이고 직면하는 간호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판단력 있는 윤리적 행위를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간호윤리교육,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nd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December 2, 2017 to December 31, 2017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6

[†]Corresponding author
(E-mail: mmy@joongbu.ac.kr)

nursing college students at 2 universiti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average score for the ethics values was 3.08 ± 0.33 points, the average score of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22 ± 0.84 . The average scor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was 2.86 ± 0.22 . It is necessary to develop case-centered textbooks in order to raise the competence to apply ethics management about biomedical issues in the course program of nursing ethic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ethical educatio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윤리적 인 성찰과 다양한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한 발전에 관해서 사회적 담론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의료 및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하게 윤리적 갈등상황을 부딪히고 경험하게 되며 타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므로 죽음 및 생명윤리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과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2].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간호사가 되기 전에 이미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임상 실습에 임하면서 죽음에 이른 대상자와 가족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간호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며,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하여 임종환자를 돌보는 것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에서의 경험들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인식과 죽음을 해석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게 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정립의 발달단계에서 부딪히는 위기 관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간호사로서 해야 할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임상실습 전 교과 및 비교과 등을 통해서 생명 의료윤리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히 확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간호 지식과 실무 의 능력을

말하며 도덕적 판단력을 통해 문제를 검토하고, 간호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전 간호윤리 가치관을 확인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도록 교육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간호윤리는 대상자에게 행하는 모든 간호행위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지침이고 간호 윤리학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태도는 이후 공부하게 되는 간호학 전공과목의 내용을 익히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6]. 간호대학생이 죽음을 이해하고 전인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간호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선행연구 [7]에서 이미 강조된바 있다. 간호교육에서 간호이론과 술기의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8].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행능력에서 성과가 높을 뿐 아니라 조직 몰입도가 높아지게 된다 [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임상현장에서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10]. 예비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현장의 수준을 낮추고 간호사로서의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간호전문직의 올바른 확립은 중요하다. 예비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 확립의 바탕이 되는 간호전문직관이 보다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과 생명의료 기술의 변화로 인해 간호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생명과 죽음의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 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 간호의 안정화 및 질병의 완화

와 향상된 인간의 삶의 질과 전문적인 간호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11].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 직업성 핵심요소 및 그 하위요인에서 간호사의 자질, 직업적 전망, 역할수행, 기본간호학 수강 유무와 순상관관계로 있다고 하였으며,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생명의료윤리는 의학, 생물학, 유학과 같은 과학 지식과 더불어 철학, 윤리학, 종교학, 인문학 등의 인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에 한 다양한 윤리 문제들에 올바른 가치관을 내리는 복합 학문이다[13].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의로나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 직결되는 윤리적 문제해결의 기반이 되며 이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정립은 대상자의 옹호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도덕적 무력감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교과목 적용 후 윤리 교과목의 학습성과인 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적용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교과목 이수 후 간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차이와 관련성을 파악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교과목 적용 후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학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교육 후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C시, K도에 위치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서 정규 교과목인 간호윤리 또는 생명윤리 교육을 이수 받은 학생을 편의추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었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를 적용하여 산출된 최소표본 수는 17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10%)을 고려하여 총 193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 한 자료 중에서 응답이 불안정하게 작성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18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수업설계 및 운영방법

간호윤리 교과목의 교육과정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C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는 생명윤리 교과목은 1학년 2학기 2학점이고, K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2학점으로 간호윤리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간호윤리 교과목은 2개 대학교에서 전공필수 과목으로 성과기반 교육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윤리교과목에 적용되는 학습성과 중에서 간호실무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와 적용에 대한 학습성과는 일치하였다.

교육방법은 강의, 임상 사례분석, 소그룹 학습, 소그룹 토론, 발표, 토의에 대한 평가, 교수의 피드백, 사례중심의 학습법을 이용하였다. 1주차~15주차의 주차별 구체적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수업내용은 Table 1과 같다.

2.4. 연구도구

2.4.1.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졸업 후 희망진로, 간호학과 지원동기, 성적의 5가지와 윤리학적 특성으로 간호사 직업관에 대한 생각, 생명윤리문제에 의한 갈등 경험, 간호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윤리에 대한 가치관의 혼동의 4가지로 구성되었다.

Table 1. The contents in nursing ethics curriculum of two schools

Week	Lecture subject	Lecture subject
1	Introduction of Subjects	Introduction of Subjects
2	Ethical concept	Ethical concept
3	Concept of bioethics	Classification of ethics
4	Utilitarianism	Utilitarianism
5	Ethical Thinking-No Violence, Principles of Good Practice, Principles of Justice	Obligatory attention
6	Ethical Thinking-Pre-motivation, Good Intentional Interference, Distributive Definition	Moral development theory
7	Nurse code of ethics	Idealism
8	Mid-term exam	Mid-term exam
9	Biotechnology and Nursing Ethics Problems	Principle of autonomy
10	Dignity and euthanasia, organ transplantation	Principle of evil
11	Ethics between nurses and collaborators	Principle of good and justice
12	Nursing Ethics Related to Nurses and Other health team	Ethical rules
13	Ethics of nursing practice	Ethical decision making
14	Task feedback and total arrangement	Legal application of ethics
15	Final exam	Final exam

2.4.2.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 도구는 Lee [16] 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인간생명 영역 9문항,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영역 9문항,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영역 8문항,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영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윤리학의 양대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의무론과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반대' 1점부터 '찬성' 5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윤리적 가치관 문항번호 1, 2, 3, 7, 9, 11, 12, 14, 15, 17, 18, 19, 20, 21, 22, 26, 28, 29는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으로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므로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고 긍정적 윤리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는 .655로 나타났다.

2.4.3. 간호전문직관

Yeun 등[17]이 개발한 29개 문항을 Han 등 [18]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5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946으로 나타났다.

2.4.4. 생명의료윤리의식

Lee[19]과 Choi[20]의 도구를 중심으로 Kwon [21]가 재구성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10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50문항으로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기존의

태아의 생명권 5문항, 태아진단 5문항, 인공수정 7문항, 인공임신 중절 6문항, 신생아 생명권 5문항, 뇌사 4문항, 장기이식 4문항, 안락사 6문항, 심폐소생술금지 5문항, 호스피스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0개 하위영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최저 50점에서 최고 20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21]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신뢰도 Chronbach's α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 .778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K 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승인번호: 1040460-A-2017-052)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충남 및 경남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을 통하여 허락받았다. 훈련받은 연구보조자가 각 대학의 게시판 모집문건을 이용하여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연구대상자로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자로 하였다. 연구보조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 동의를 하고 설문지 작성 시 미약하지만 일부 문항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의 자의에 따라서 설문지 작성을 그만 둘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적 특성,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윤리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 3)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하부영역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대상자에서 여자가 152명(81.7%)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4학년이 74명(39.8%), 3학년 68명(36.6%)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 취업지에서 대학병원이 133명(71.5%)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 74명(39.8%), '적성에 맞아서' 44명(23.7%)이었다. 앞으로의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보장된 직업' 135명(72.6%), '잠정적 직업' 23명(12.4%)이었다. 학업성적은 '3.0~3.9' 148명(79.6%)으로 가장 높았고 생명윤리문제로 인한 갈등경험여부에서 '없다' 105명(56.5%), '있다' 41명(22.0%)로 나타났다. 간호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잘 알고 있다' 100명(53.8%), '보통이다' 77명(41.4%)이었다. 간호윤리에 대한 가치관 혼동 정도는 '가끔 혼동된다' 109명(58.6%), '잘 모르겠다' 49명(26.3%), '매우 확고하다' 21명(11.3%)이었다.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가치관에서 학년($p=.008$), 간호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p=.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간호전문직관에서도 학년($p < .001$), 간호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p < .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윤리문제로 인한 갈등 경험($p=.036$)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한 하부 영역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년별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평점은 3.08 ± 0.33 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영역은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이 3.19 ± 0.93 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인간 생명 영역으로 2.98 ± 0.54 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 평점은 3.22 ± 0.84 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간호의 전문성 $3.29 \pm$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186)

Characteristic	Division	n(%)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34(18.3)	2.98±0.37	-1.941	3.31±0.88	0.670	2.92±0.21	1.562
	Female	152(81.7)	3.10±0.32	(.054)	3.20±0.84	(.504)	2.85±0.22	(.120)
School year*	1 ^a	25(13.4)	2.94±0.23		2.42±0.42	21.150	2.87±0.21	
	2 ^b	19(10.2)	2.92±0.22	4.071	2.53±0.52	(.000)	2.81±0.35	1.619
	3 ^c	68(36.6)	3.14±0.30	(.008)	3.57±0.81	(a <b,c,d)	2.90±0.19	(.186)
	4 ^d	74(39.8)	3.11±0.39		3.35±0.78		2.83±0.19	
Desired employment after graduation	University hospital	133(71.5)	3.07±0.35		3.27±0.87		2.86±0.20	
	Secondary hospital	20(10.8)	3.07±0.29		3.11±0.86		2.86±0.28	
	Public official	19(10.2)	3.12±0.25		2.86±0.65		2.84±0.23	
	Industrial nurse	2(1.1)	3.08±0.49	0.367	2.91±.51	1.000	2.92±0.05	0.283
	Health teacher	2(1.1)	2.83±0.47	(.899)	3.80±0.82	(.427)	2.86±0.00	(.945)
	Foreign nurse	5(2.7)	3.08±0.45		3.28±1.04		2.97±0.34	
	Other	5(2.7)	3.22±0.26		3.48±0.31		2.90±0.29	
Nursing department application motive	Advantageous for employment	74(39.8)	3.02±0.26		3.16±0.79		2.85±0.23	
	Valuable profession	35(18.8)	3.08±0.44		3.18±0.94		2.86±0.23	
	Aptitude	44(23.7)	3.13±0.36		3.37±0.84		2.86±0.19	
	Stable job	12(6.5)	3.24±0.39	1.174	3.21±0.92	0.765	2.88±0.27	0.090
	According to grade	4(2.2)	3.10±0.31	(.324)	2.66±0.54	(.576)	2.92±0.32	(.994)
	Recommendation from parents/others	17(9.1)	3.05±0.25		3.33±0.87		2.87±0.14	
Future occupational view of nurses	Guaranteed job	135(72.6)	3.08±0.32		3.23±0.87		2.86±0.23	
	Best profession	13(7.0)	3.11±0.44	0.110	3.60±0.97	1.322	2.92±0.27	0.365
	Potential job	23(12.4)	3.05±0.40	(.954)	3.11±0.73	(.269)	2.85±0.15	(.778)
	Turnover planned	15(8.1)	3.07±0.27		3.01±0.59		2.84±0.17	
Academic performance	2.0~2.9	21(11.3)	3.04±0.33		3.30±0.66		2.86±0.32	
	3.0~3.9	148(79.6)	3.08±0.34	0.295	3.20±0.85	0.130	2.86±0.19	0.293
	Over 4.0	17(9.1)	3.12±0.33	(.745)	3.26±0.99	(.878)	2.90±0.27	(.746)
Experience of conflict due to bioethical problems*	Experienced ^a	41(22.0)	3.11±0.34		3.32±0.88		2.85±0.21	
	No experience ^b	105(56.5)	3.07±0.34	0.406	3.24±0.85	0.825	2.89±0.22	2.906
	Not interested ^c	7(3.8)	3.17±0.30	(.749)	3.27±0.52	(.482)	2.87±0.32	(.036)
	Do not know ^d	33(17.7)	3.05±0.30		3.02±0.83		2.77±0.16	d <b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ursing ethics*	Know well ^a	100(53.8)	3.14±0.36	4.229	3.46±0.78	10.822	2.84±0.21	0.979
	Average ^b	77(41.4)	3.01±0.30	(.016)	2.98±0.84	(.000)	2.88±0.23	(.378)
	Do not know ^c	9(4.8)	2.97±0.23	b <a	2.58±0.65	c <b <a	2.91±0.15	
The degree of confusion about nursing ethics	Very firm	21(11.3)	3.18±0.39		3.44±0.89		2.86±0.23	
	Sometimes confused	109(58.6)	3.09±0.34	1.475	3.25±0.86	1.551	2.88±0.22	0.989
	Often confused	7(3.8)	2.97±0.16	(.223)	3.42±0.48	(.203)	2.77±0.33	(.399)
	Unsure	49(26.3)	3.02±0.29		3.02±0.82		2.83±0.17	

* Scheffe post hoc test

Table 3. Levels of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186)

Item	Mean \pm SD	Minimum	Maximum
Ethical values	3.08 \pm 0.33	1.97	4.10
Human life domain	2.98 \pm 0.54	1.33	4.56
Nurse and subject relation domain	3.16 \pm 0.68	1.67	4.56
Nurse and nursing relation domain	3.05 \pm 0.41	2.00	4.25
Nurse and coagent relation domain	3.19 \pm 0.93	1.25	5.00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3.22 \pm 0.84	1.56	4.83
Professional self concept	3.21 \pm 1.06	1.00	5.00
Social recognition	3.20 \pm 0.71	1.60	5.00
Nursing professionalism	3.29 \pm 1.05	1.00	5.00
Role of the nursing system	3.28 \pm 1.19	1.00	5.00
Uniqueness of nursing	3.16 \pm 1.45	1.00	5.00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86 \pm 0.22	2.30	3.96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2.72 \pm 0.48	1.00	4.00
Fetal diagnosis	2.94 \pm 0.37	2.00	4.00
Artificial insemination	2.78 \pm 0.39	1.86	4.00
Abortion	2.86 \pm 0.31	1.50	4.00
Newborn right of life	3.18 \pm 0.42	1.80	4.00
Brain death	2.83 \pm 0.44	1.75	4.00
Organ transplantation	2.76 \pm 0.40	2.00	4.00
Euthanasia	3.01 \pm 0.42	2.00	4.00
Do not resuscitation	2.63 \pm 0.44	1.67	4.00
Hospice	3.01 \pm 0.41	2.00	4.00

Table 4. Correlations among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186)

	Ethical value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p)	r(p)	r(p)
Ethical values	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0.489 (.000)	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0.059 (.424)	.066 (.369)	1

1.05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의 독자성으로 3.16 \pm 1.45점이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2.86 \pm 0.22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영역은 신생아 생명권이 3.18 \pm 0.42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안락사로 2.63 \pm 0.44점이었다.

3.3.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가치관 ($r=.489, p=.000$)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교과목 교육이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2개 대학교의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확인하였고 일치하는 학습성과는 간호의 실무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와 적용에 관한 것이었다.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성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1학년 또는 2학년 때 간호윤리 교과목의 수강 후 윤리적 기준,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학습성과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에서 윤리적 가치관은 학년($p=.008$)과 간호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p=.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윤리 교과목 수업 전의 간호대학생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22] 본 연구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 1학년, 2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Kwon [23]와 같이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의무론적 성향이 있었고 3학년의 경우 임상실습을 첫 경험하면서 가장 높은 의무론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윤리에 대한 교과목 학습의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되며 2학년은 교과목을 수업 후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3학년이 가장 높은 시점이므로 효과의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임상실습 교육 시 간호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윤리적 의사결정모형 기반 토론식 수업이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Kim 과 Jeong[24]의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윤리 수업 전·후 총 점과 하위영역별 점수의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주 8시간의 수업 시간이 학생들에게 윤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속적인 간호윤리 교

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실제적인 윤리적 상황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판단과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 임상실습 경험도와 학년별에 따른 지속적인 간호윤리 교육을 위한 운영과 편성이 필요하다[2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에서 간호전문직관은 학년($p < .001$), 간호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p < .001$)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1학년보다 2, 3, 4학년이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윤리 수업 전인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윤리에 대한 가치 혼동경험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22], 간호윤리 교과목을 교육받지 않음으로써 윤리 가치관의 혼동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를 통해 간호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함을 알 수 있다. 간호윤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답한 대상자가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 ‘모른다’의 순이었다. 간호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인지할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높아지므로 간호윤리 교육에 대해 윤리교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내용의 확인과 교육 효과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특성에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생명윤리문제로 인한 갈등 경험($p=.036$)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에서 생명윤리문제로 인한 갈등 경험 없는 대상자가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을 실제 학습과 연계되는 데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간호윤리 교과목뿐 아니라 간호학 교과목 전반에 대한 생명윤리문제의 갈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공감하고 토의하는 내용의 교육이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학년별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 평점은 3.08 ± 0.33 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영역은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영역이 3.19 ± 0.93 점으로 의무론적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인간생명영역이 2.98 ± 0.54 점으로 공리주의적 성향을 나타낸 점은 Kim 과 Jeong [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인간생명 영역의 하부영역 중에서 ‘환자의 자살계획에 대한 비밀유지’ 문항을 의무론 대 공리주의적 성향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기 때문인 것

로 보여진다[24]. 하지만 Kim 과 Jeong [24]의 연구에서는 수업 후 평균 평점이 3.30 ± 0.40 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좀 더 강한 의무론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간호윤리 교과목의 적용뿐만 아니라 간호교육 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있어야 하며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병원 현장의 간호실무 사례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토론도 이루어져야 하므로[24] 간호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균 평점은 3.22 ± 0.84 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은 간호의 전문성 3.29 ± 1.05 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의 독자성으로 3.16 ± 1.45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Gu와 Lee [26]의 결과인 3.76 ± 0.84 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의 전문성이 3.91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Cho [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의 전문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전문직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간호의 독자성은 가장 낮은 점은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 간호실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부 영역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하부영역의 내용을 고려하여 간호학 교과과정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평균 평점은 2.86 ± 0.22 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영역은 신생아 생명권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안락사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을 비교한 Kwon [21]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은 결과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신생아 생명권과 관련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9, 23, 27, 28]. 가장 낮은 영역은 안락사였으며 Moon [22]과 Seo와 Cha [29]의 연구 결과처럼 죽음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죽음에 대한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죽음에 관한 의료윤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죽음에 관한 내용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9].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가치관($r=.489, 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on [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Park [30]의 연구결과 자존감이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간호사로서의 정체감과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간호 대학생들이 양적이며 질적인 간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직무만족감과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간호전문직관의 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31].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 간호전문직관 확립과 유지를 위한 정규 교과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 함양은 필수적인 것으로 교과과정으로는 간호학 관련된 모든 교과목에 생명의료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비교과 과정에서는 봉사활동 등이 연계된 융합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과목을 이수 후 간호윤리 교과목의 학습 성과인 간호실무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을 파악하고 예비 전문직 간호사로서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확립과 간호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가치관과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직업윤리와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 편성 시 간호윤리 교과목 및 관련 과목의 교과과정 수립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학년 단계별에 맞는 임상사례의 예시를 통한 토론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하고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여 간호교육과정이 계획되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실무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의 교과 과정 상 간호 윤리 교과목의 융합 접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봉사, 도덕적 민감성 등의 의미에 가치를 둔 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 윤리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생명과 죽음 등의 개념적인 영역의 접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1. D. S. Joung. "A Theoretical Literature Investigation about Life Dignity and Life Ethic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eses Collection*, Vol.47, pp. 329-337. (2012).
2. I. S. Kim.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4, No.1, pp. 1-13. (2013).
3. Y. J. Lee, Y. S. Kim, "The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8, No.2, pp. 95-109. (2017).
4. M. S. Yoo,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E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2, pp. 61-76. (2011).
5. S. Y. Yun, M. S. Kim,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2, pp. 363-372, (2014).
6. H. Y. Hwang.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Ethics*, Vol.20, No.3, pp. 305-316. (2017).
7. E. A. Cho.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among the Nursing Graduate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12, pp. 624-638. (2018).
8. S. O. Kim, S. M. Kim,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applying for Nursing Students on Critical Think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pp. 1151-1161. (2016).
9. H. S. Kang. "Path analysis of variables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University, Jinju, (2017).
10.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Administration*, Vol.13, No.3, pp. 285-292. (2007).
11.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5, pp. 349-358. (2016).
12. H. H. Cho,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 548-557, (2014).
13. J. Y. Ha, D. H. Kim, S. K. Hwang.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5, No.2, pp. 216-224, (2009).
14. M. S. Yoo,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2, No.2, pp. 61-76. (2011).
15. 2015 Mindspark Interactive Network, Inc. G Power 3.1 analysis software. retrived August 5, 2015, from <http://gpower.software.informer.com/3.1/>, 2017.07.01.
 16.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0, No.2, pp. 249-270, (1990).
 17.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 1091-1100, (2005).
 18.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 73-79, (2008).
 19. G.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Non Health Care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2002).
 20. C. S Choi. “Bioethical consciousness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Gangneung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Kangnung, (2002).
 21.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3).
 22. M. Y. Moon,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9, pp. 305-314. (2018).
 23. Y. H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3, No.2, pp. 262-272, (2009).
 24. C. H. Kim, S. Y. Jeong,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 405-414. (2014).
 25. S. H. Lee, S. H. Kim, “Effects of a Debate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thical value and Moral Judgement in Nursing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4, pp. 2263-2276, (2017).
 26. H. J. Gu, O. S. Lee, “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 7356-7366. (2015).
 27. H. S Je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8, No.3, pp. 401-410. (2011).
 28. M. Y. Moon, A. H. Jaung,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actice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3, No.2, pp. 49-62. (2012).
 29.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5, pp. 349-358. (2016).
 30. S Y Park, K. Y.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6, No.6, pp.

- 255-261. (2015).
31. H. H. Cho,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 548-557. (2014).